"세계적인 식물학자로 성장해 은혜에 꼭 보답하겠습니다."

2010학년도 대입 수시전형에서 서울대에 합격했으나, 입학금이 없어 합격자 등록을 포기할 처지에 놓였던 광주 숭덕고 임동준(18)양이 광주일보 보도 이후〈12월 15일자 7면〉 후원자의 도움으로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됐다.

'서울대 합격하고도 등록금 없어 눈물'

숭덕고 임동준양에 후원금 '밀물'

익명의 독지가 9명 후원

동준양 "꼭 보답할게요"

15일 광주 숭덕고에 따르면 동준양의 딱한 사정이 보도된 이후 광주·전남에서 후원 의사를 밝힌 독지가만 9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익명을 요구한 A씨는 동준양의 첫 학기 입학금과 기숙사비 등 300만원을 전액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또 이름을 밝히지 않은 독지가 8명도 소액이지만 마음이 담긴 후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날 후원금 소식을 접한 동준양은 "돈 때문에 꿈을 포기해야 할지 몰라 불안했는데,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면서 "열심히 공부해 농부들은 물론 모든 가정의 식탁이 저렴한 비용으로 풍성해 질 수 있도록 세계에서 가장 값싸고 질 좋은 식물 종자를 만들어 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동준양의 담임인 숭덕고 배춘 교사는 "동준이가 주변의 도움으로 일단 대학에 입학하게 돼 다행"이라면서도 "다만, 동준이의 가정 형편이 워낙 어려운 만큼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돈 걱정 없이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면 한다"고 말했다.

'비싼 로열티를 주고 종자를 구입하는 농부를 돕는 게 꿈'이었던 동준양은 올해 서울대 수시전형에서 식물생산산림과학부에 합격했으나, 버스비조차 마련하기 힘든 극심한 가난 때문에 꿈을 접어야할 상황이었다.

후원 희망자는 배춘 교사(010-2603-1784) 또는 숭덕고(062-973-4577~8)로 문의하면 된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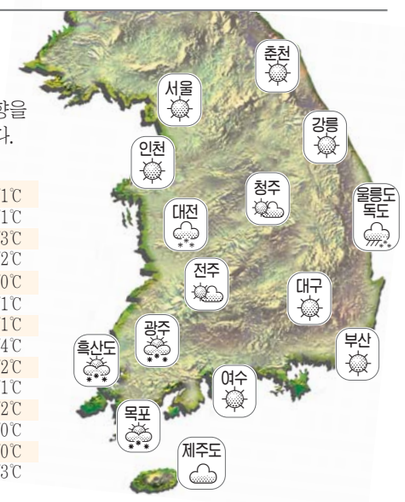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7시 34분 해짐 17시 22분 달뜸 07시 19분 달짐 16시 59분

추위 녹이는 온정

차가운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흐리고 눈이 내리겠다.

광 주	구름많고 한때눈	-4/1℃
목 포	구름많고 한때눈	-3/1℃
여 수	맑음	-1/3℃
완 도	흐린뒤 맑음	-2/2℃
구 례	맑은뒤 흐림	-4/0℃
해 남	흐리고 가끔 눈	-5/1℃
장 흥	맑은뒤 흐림	-5/1℃
고 흥	구름 조금	-2/4℃
순 천	구름 조금	-2/2℃
영 광	흐리고 가끔 눈	-6/1℃
진 도	흐리고 가끔 눈	-3/2℃
전 주	맑은뒤 흐림	-6/0℃
남 원	맑은뒤 흐림	-9/0℃
흑산도	흐리고 가끔 눈	2/3℃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1.0~2.0m
먼바다	북서~북	1.5~2.5m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1.0~2.0m
먼바다	북~북동	1.5~2.5m

체감온도	동파지수	뇌졸중지수
관심	낮음	낮음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1.0~2.0m
먼바다	북서~북	1.5~2.5m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1.0~2.0m
먼바다	북~북동	1.0~2.5m

	밀물	썰물
목포	01:26 14:22	06:50 19:38
여수	09:09 20:56	02:24 15:11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17(목)	18(금)	19(토)	20(일)	21(월)	22(화)
날 씨						
최저/최고	-4/2	-5/1	-4/2	-4/3	-2/6	-1/9

광주·전남·인천 10개교 '5·18 협력학교 운영 보고'

"5월정신의 가치 알게 됐어요"

체험학습·수업 사진·UCC 동영상 등 전시

"5·18 협력학교 교과 수업을 받게 되면서 5월 정신의 진정한 가치와 5·18 민중항쟁을 체계적으로 배우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2009 5·18 협력학교 운영 결과 보고회'가 열린 15일 오후 광주시 서구 치평동 5·18 기념문화센터 1층 전시관. 5·18 시민군 그림과 글짓기, 사적지 체험학습 및 수업 사진, 역사 신문, UCC 동영상 등 전시품으로 가득했다. 지난 1년간 5·18 협력학교의 교사와 학생들이 프로그램 운영과정에서 직접 만든 결과물이다.

5·18 협력학교는 5·18 기념재단과 광주·전남지역 초·중·고등학교가 협약을 체결, 수업 과정에서 다양한 5·18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협력학교에 참여 중인 학교는 광주 6개 학교(송우초·신가중·전남공고·전남여고·전자공고·자연과학고), 전남 3개 학교(목포 항도여중·순천 팔마고·나주고), 인천 1개 학교(인천 산마을고) 등 10개교이다.

이들 학교는 매년 3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1년여간 5·18 협력학교를 운영하게 되며, 해마다 3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각 학교에서는 '수업(5·18 주제수업)과 체험학습(5·18 사적지 체험 및 국립 5·18 민주묘지 참배)을 통한 5·18 바로 알기'를 비롯한 '5·18 인정교과서를 이용한 민주시민교육', '5·18 민주정신 UCC로 표현하기' 등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해왔다.

광주 전자공고 김유진(여·28) 지도교사는 "5·18 사적지 체험과 국립 5·18 민주묘지 참배 등 체험학습 위주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학생들에게 오월 정신의 진정한 가치를 심어주는 계기가 됐다"며 "5·18 민중항쟁의 정신 교육과 관련, 가치 전달 측면에서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나주고 김남철(46) 지도교사는 "학생들이 5·18 민중항쟁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못해 자세히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다양한 행사와 자치활동, 교과 재량활동과 연계해 학습해보니 이해도가 크게 높아졌다"고 말했다.

5·18 기념재단 교육사업팀 송소연(여·33) 과장은 "지난 2007년부터 협력학교 사업을 시작했는데, 교육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알차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참여학교 수도 점차 늘고 있다"며 "내년에도 다양한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 학생들에게 5월 정신의 소중한 가치와 의미를 심어줌은 물론 민주·인권·평화의 광주정신을 고양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2009 5·18 협력학교 운영 결과 보고회'가 열린 15일 광주시 서구 5·18 기념문화센터 전시관에서 참석자들이 5·18을 주제로 한 그림과 글짓기, 체험학습 자료들을 관람하고 있다. 이들 자료는 광주·전남과 인천 등 전국 10곳의 5·18 협력학교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것이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우치동물원 테마는 '워킹 사파리'

동물과 소통하도록 리모델링

광주·전남 지역의 유일한 동물원인 광주 우치동물원이 재미와 자연환경, 쇼핑 기능까지 갖춘 종합 웰빙레저공간으로 다시 태어난다. 핵심 테마는 방문객과 동물 간의 소통이 가능한 '워킹사파리'로 설정됐다.

광주시는 15일 '우치동물원 시설개선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중간용역결과 보고회에서 "동물원뿐 아니라 그 일대가 방문객들이 걸으면서 보고, 즐기고 느끼는 종합 웰빙레저공간으로 탈바꿈해야 한다"며 "전체 공간을 호수공원 존, 테마파크 존, 동물 존, 에코 라이프 존, 에듀컬쳐 존 등 5개 존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방문객이 걸으면서 직접 동물과 접촉할 수 있는 '워킹사파리' 개념을 도입키로 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청소년·외국인 교사 '성암국제문화교류 캠프'

17일부터 성암국제수련원

전남지역 청소년들이 외국인 교사들과 어울려 국제 문화를 교류하는 제 6회 성암국제문화교류 캠프가 개최된다.

17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담양군 수북면 소재 성암국제수련원에서 열리는 이번 캠프에는 전남도내 중학교 2학년 200명과 외국인 교사 50명 등 모두 250명이 참가한다.

재단법인 국제청소년교육재단(이사장 이강열)이 주관하고 전남도교육청이 지원하는 이번 캠프는 일반 영어캠프와는 달리 외국인 교사와의 문화교류를 통해 자연스럽게 영어를 익히고 영어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구성돼 있다.

캠프 참가교사는 전남지역 초·중·고 원어민 교사와 조선대, 광주과학기술원 등 광주·전남에 거주하는 외국인 교사들이다.

주요 프로그램은 국제사회 이해 교육과 세계 문화의 밤, 무용·문화 발표회, 민요 배우기 등이다. 캠프 마지막 날에는 병풍산(해발 822m)에서 환경정화활동으로 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박진표기자 lucky@